

장백산천지

제 71 호

2008 년 2 월 8 일

금요일

新年快樂



상련: 신년쾌락

우련: 하늘을 존경하고 덕을 중히 여기면
뜻대로 되고 길하리라

좌련: 마음이 진실하고 선을 향하면
다복 장수하고 평안하도다

전민각성의 2008 년을 맞이하여

2008 년 춘절을 맞는 기꺼운 날에 3 퇴 (퇴당, 퇴단, 퇴대)인수는 3,180 만을 돌파했다.

지난 몇십년동안 중국사람의 사유는 모두 공산당의 의지하에 종래로 진정으로 자신의 생명을 선택할수 없었다. 오늘 이렇게 많은 중국사람들이 리성적으로 사고하면서 3 퇴할수 있는것은 중국사람은 미래로 갈수 있고 자손후대들이 영원히 행복할수 있다는것을 의미하며 서양사람들은 공산주의운동이 전 인류에게 가져다 준 재난을 제거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.

2008 년은 중화대지에 전민이 각성하여 공개적으로 3 퇴하며 평화적으로 중공을 해체하는 빛나는 한해가 될것이다. 중공에게 기편당한 모든 당원들에게 충고한다. 다시는 중공의 순장품이 되지 말고 보귀한 생명을 위해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기회를 잡으시라. 빨리 중공의 일체 조직에서 탈퇴하시라.



<우리집은 평안할거예요>



할아버지: 지금 유행되고 있는 <중공멸망은 하늘의 뜻이다.>, <퇴당, 퇴단, 퇴대하여 평안을 확보하자.> 이 말은 참 도리가 있단다. 너희들은 퇴당, 퇴단, 퇴대를 했느냐?

자손: 모두 탈퇴했어요. 우리집은 모두 평안할거예요.

퇴단 공개성명을 발표한 중국신민당 대리주석 곽천

남경 사범대학 부교수 곽천(郭泉)박사는 2007 년 11 월 14 일에 국가지도자들에게 공개서한을 발표한후 12 월 6 일에 학교당위에서 교무직을 박탈당했고 14 일에 중국민주동맹에서 맹적을 취소당했다. 12 월 17 일에 그는 중국 각지의 유권단대의 위탁을 받고 신민당을 창립했으며 대리주석으로 취임했다. 목전 제 1 단의 신민당 당원은 이미 1000 만에 달했다. 12 월 23 일에 그는 퇴단, 퇴대 공개성명을 발표했다.



가사 진 상 을 찾 다

천지간은 망망한데

세인은 어디로 갈 가

미혹 속에서 길을 모르는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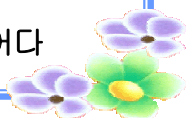
지남은 진상에 있네

빈부는 마찬가지라

큰 난은 피할 길 없는데

그물에 열린 곳 있으니

빨리 진상을 찾을 지어다



뉴욕 70 여명 정부인사들이 신문만회를 축하하였다



세인들이 주목하는 2008 년
신당인화인신년
만회는 1 월 30
일에 뉴욕 맨하
탄 레이디오시

티 음악청에서 서막을 열었다. 뉴욕 각급 70 여명 정부인사들이 분분히 신당인 텔레비전을 통해 파룬궁학원 신문에술단에 축하신과 표창을 보냈으며 전세계화인들에게 세배를 드리고 신문에술단 공연의 성공을 미리 축하했다.

환영을 받은 명혜학교공연



금년 1 월 27 일 오전, 일본 도쿄도 메이지 공원의 명절활동에 참가한 도쿄 파룬궁학원과 명혜학교의 파룬대법 교마제자들의 뛰어난 연출은 관중들의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다.

물불도 침해 못한 작은 집

2007 년 12 월초, 흑룡강성 할빈시교 대시장은 불이 나 막대한 손실을 보았다. 시장의 비닐천정은 죄다 타버렸고 시장의 남쪽 점포도 전부 타버렸다.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한 작은 점포만은 활활 타버리는 불길 속에서도 타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. 더욱 신기한 것은 구호차가 물을 뿌린후 시장은 온통 두꺼운 얼음이 졌지만 그 작은점포만은 레외로 집안에 6 만여원되는 화물이 손실없이 보존되었다. 이것을 본 옆 상점의 주인들은 경탄하고 부러워했다. 작은 점포의 주인은 원래 파룬궁학원이었다. 그는 늘 <파룬대법을 믿으면 복받는다>, <파룬궁호신부를 지니고 다니면 운전수는 차사고가 나도 위험에서 벗어났다>, <병원에서 사형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“파룬대법이 좋다”고 목념하여 기사회생했다>, <태어날때부터 울줄 모르던 애가 대법음악을 듣고 정상이 되었다>는 등등 대법이 사람을 구하는 신기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었다. 그의 마누라는 법륜공사부님의 법상앞에 꿇어 앉아 사부님이 구도한 은혜에 감사를 드렸다.



8 년전

두메산골에서 도보로 북경에 상방하러 온 4 사람

1999 년
7 월 20 일,
강택민집단
이 전면적으
로 파룬궁을
탄압했다. 사
천성 두메산
골에 사는



소수민족 파룬궁학원 4 명은 몇개 큰산을 넘어 며칠동안 도보로 북경에 상방하러 왔다. 그는 이렇게 말했다. <우린 북경에 와서 정부에게 알려주려고 한다. 우리 고장은 편벽하고 가난해서 병 볼 수도 없소. 이렇게 좋은 공법을 정부에서 반대하지 말고 우리들이 련마하게 해주시요.>

윗 사진은 도보로 천안문광장에 와서 평화적으로 청원하고 있는 한 로인이다.

워싱턴 민중들이 중국대사관앞에서 항의

금년 1 월 28 일 점심, 워싱턴 민중들이 중국주재미국령사관앞에 모여 중국령사관원들이 미국, 캐나다, 한국, 스웨덴 등 나라의 지방관원들에게 <신당인전세계화인만회>를 비방한 것을 견책하고 항의했다.



연변박해소식

■ 금년 1 월 29 일 오후 1 시경, 연길시 파룬궁학원 추계영(邹桂英), 왕숙매(王淑梅)는 흥안 시장에서 진상을 알리다가 고발되어 이란파출소 악경들에게 랍치되어 지금 연길지구류소에 갇혀있다.

■ 금년 1 월 29 일 오후 2 시경, 연길시 파룬궁학원 고숙매(高淑梅)는 파룬궁진상을 이야기하다가 건공가파출소 악경들에게 랍치되고 집을 수색 당했다. 그는 50 여세 되는 부녀자로서 뇌혈전후유증으로 혈압이 높고 발음이 뚝뚝하지 못했다. 그는 지금 연길지구류소에 갇혀있다.